

29일 쇠고기수입 고시 강행...국민과의 전쟁 선포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5.29 03:18

총연맹 4시30분 강동창고앞 긴급 기자회견, 7시 비상 투본회의 개최

이명박 정권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고시를 29일 오후 4시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소리를 내팽개친 채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30분 강동창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저녁 7시 언론노조에서 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비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날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전력 참가한다.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1번째 촛불문화제는 장관고시를 앞두고 여느때보다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이날 경찰은 병력과 차량을 동원해 청계광장 주변 통로를 완전 봉쇄하는 등 초법적인 만행을 자행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뚫고 명동과 퇴계로 등을 거쳐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행진과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행진대오 속에 사복경찰을 배치해 현장동향을 보고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다가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서울시경 소속 정보과 형사임이 드러났다. 전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시민들을 고립시킨 상황에서 경찰채증조로 의심되는 자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이 나서서 시민과 기자들의 항의를 막으며 변명을 일삼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조)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5]
촛불을 든 시민들과 함께 행진을 하던 한 시민이 사복경찰, 프락치로 확인돼 한때 시민들에 둘러싸여 집중적인 추궁이 일어났다. 이런 모습을 발견한 방송카메라기자, 사진기자, 취재기자가 계속되는 질문으로 결국 서울시경 정보과 형사임이 밝혀졌다.

[사진6]
[사진7]
[사진8]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